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2년 6월19일
성령강림 후 둘째 주일
세계 교회력 「다」해 30주

☞ **오늘의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왕상 19:12)



제목: 호렙산의 선지자 엘리야, 1550~1560년 작품/ 화가: 볼테라(Volterra, Daniele da, 1509-1566)/ 이탈리아 시엔나 시에 있는 Pannocchieschi d'Elci에 전시된 작품 (미국 반더빌트대학교 신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끌어옴)

예배 장소: 서울 동직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00~5:00 / 간식 및 친교: 5:00~5:20 / 교우모임: 5:20~6:20
목사: 정용섭(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기에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길을 함께 가기에 오늘 우리는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는 허무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생명 충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에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생명의 원초적 근원이며 궁극적인 미래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전체 삶과 운명으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함께 부르는 떼제 찬양」 5장 (찬미하여라) 2회 ... 다 함께

Chord progression: Dm G Dm Bb C F A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Chord progression: Dm G Dm Bb C Dm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함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기 자신 속에 갇혀서 지낼 때가 많기에 삶의 과정에서 오해도 많고, 실망도 많고, 불안도 크고, 분노도 자주 일어나며, 원망도 그치지 않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보이는 무기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삶이 파괴됩니다. 풍요로운 21세기에도 야만의 세력이 여전히 막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세상에 편승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그리스도교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국악찬송 95장 (보혜사 성령) ... 다 함께

황대익

변규백

자진탈춤 장단으로



1.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같이
 2.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같이
 3.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네
 우리의 기 - 도를 들어주시고
 우 리의 찬 - 송을 받아주시고
 우 리의 예 - 배를 받아주시고
 평 화의 강 - 가로 인 - 도하시네
 승 리의 언 - 덕에 세 - 워주시네
 축 복의 땅 - 으로 인 - 도하시네
 할 렐 루 야 할 렐 루 야 보 혜 사 성 령
 할 렐 루 야 할 렐 루 야 찬 송 합 니 다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읽히고 낭독되고 해석되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놀라움과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이도 말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열왕기상 19:1~4, 8~15(전) ... 오미영 집사

성서교독 시편 42:1~11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사슴들이 물을찾아 소리높여 부르짖듯 내영혼이 주를향해 소리높여 울부짖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영혼이 갈망하나 어느때에 주님앞에 나아가서 뵈게될까
네하나님 어디있나 사람마다 말을하니 내눈물이 밤낮으로 내음식이 되는구나
-사람들과 어울리어 주님전에 올라가서 찬송소리 힘찬기도 기쁜예배 드러온몸
이런일로 저런일로 내영혼이 녹는구나 이런일로 저런일로 영혼녹아 내리누나
-내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정말너는 어찌하여 괴로워만 하고있나
하나님을 희망하라 구원의주 찬양하라 하나님을 희망하라 구원의주 찬양하라
-내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정말너는 어찌하여 괴로워만 하고있나
-하나님을 희망하라 구원의주 찬양하라
-하나님을 희망하라 구원의주 찬양하라

둘째말씀 갈라디아서 3:23~29 ... 오미영 집사

*셋째말씀 누가복음 8:26~39 ... 오미영 집사

*응답찬송 새로운 예배 찬송 492장 (아멘) ... 다 함께



설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 정용섭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66장 (다 감사드리세) ... 다 함께

봉헌예전

신앙고백 니케아신조 ... 다 함께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어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헌금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예전

성찬찬송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1, 5절 ... 다 함께

준비기원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빵을 주셨으니, 이 빵이 곧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포도 넝쿨과 인간 노력의 열매로 이 포도주를 주셨으니 이 포도주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들판의 밀알이 변하여 빵이 되고, 포도밭의 포도송이가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기를! 아멘.**

인사나눔

집례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계십니다.**

집례자: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높입니다.

회중: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높입니다.**

성령임재 기도 ... 집례자

성찬 제정사

집례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들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전 11:23-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중: **아멘.**

집례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행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회중: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마 27:27-50),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눅 24:44-48),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행 1:9-11). **아멘!**

분할례 ... 다 함께

집례자: 우리가 이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룩한 친교입니다(막 14:22, 요 6:56-57, 고전 10:16).

회중: **아멘.**

집례자: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거룩한 친교입니다(막 14:24, 요 6:56-57, 고전 10:16).

회중: **아멘.**

신앙고백 (하나님의 어린양) ... 다 함께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찬참여

집례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양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중: **아멘.**

[집례자의 안내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와서 빵과 잔을 받는다.]

감사기도 ... 집례자

감사찬송 18장 (성도들이 찬양하자) 1절 ... 다 함께

알림 ... 목사

파송예전

*마침찬송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둘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세상으로 흩어 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1.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2월 9일 성찬식 이후 무려 2년 4개월만인 오늘 성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찬의 감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교인 등록을 마친 신자 이순희 님, 이문숙 님, 이철옥 님을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립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비대면 예배 전환 전에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만 당시 참석 못하셨던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3. 다음 주에는 예배 후 이길용 교수의 "루터 이야기" 특강이 마련돼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담당 : 최선아 집사)

* 지난주일(6월12일) 헌금: 445,000원(주일 245,000원, 통장 20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6, 7월 예배준비

날짜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 봉독	헌금/안내
6월26일	4층 아트컬리지5	김동호	윤혜정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7월3일	4층 아트컬리지5	이춘우	박수진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7월10일	4층 아트컬리지5	정용섭	김기범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7월17일	4층 아트컬리지5	박재진	이유선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7월24일	4층 아트컬리지5	김동호	오미영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지난주일(6월12일) 설교 발췌

제목: 성령이여 오소서~ (요 16:12~15)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물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렵게 느끼지 영혼의 울림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영혼의 울림이 없으니, 즉 생명을 통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니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형식적인 관계만 맺은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만 줄달음치듯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냇물을 목말라하는 사슴처럼 영혼의 해갈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그 길을 가보자.'라는 뜻으로 이미 앞에서 나온 말씀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기억해두십시오. 의기투합할 수 있는 친구가 온다고 해도 약간 즐거운데,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니, 얼마나 설레는 말씀입니까? 이런 거룩한 설렘이 없이 어떻게 이 팍팍한 현실의 삶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어떤 궁극적인 세계는 우리가 노력해서 손에 넣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연인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상대방을 찾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에게 왔다는 경험입니다. 엄마들도 자기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에게 왔다고 느낍니다. 시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예술가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신다는 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진리인 하나님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심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는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집이나 자동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거래 방식으로만 세상을 경험하기에 하나님 경험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라서 '오소서. 성령이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이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까? 관심이 없으신가요?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에 떨어진 사람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삶을 외면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더 성실하게, 전력투구하듯이 살아갑니다. 더 투쟁하고, 더 인내하고, 더 온유하고, 더 사랑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더 관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에 더 철저합니다. 그 모든 치열한 삶의 능력이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베니 상태 스피리투스!'라는 기도를 화두처럼 입에 달고 삽니다. 지금까지 어땠는지 모르나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일단 '성령이여, 오소서!'라는 기도를 시작해보십시오.